

북한 산업구조 경공업위주 전환

주력 수출산업화 추진 성장 전망 ... 서방무역권 진입 가시화

중공업 중심의 북한 산업구조가 섬유 등 경공업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북한의 품목별 수출에서 방직용 섬유제품의 비금속제품을 누르고 최대 수출상품으로 부상했다. 이는 북한의 중공업이 설비낙후, 에너지부족 등으로 생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나 북한당국이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해 비교적 수월하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경공업분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심각한 외환사정 악화로 식량수입마저 대폭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섬유기계와 가죽가공기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은 이같은 산업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 현황 (단위 : 1000달러, %)					
H S 대 분 류	1993		1994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방직용 섬유와 제품	200,950	16.69	198,783	23.69	▽1.08
비금속과 그제품	293,659	28.75	187,825	22.38	▽36.04
식물성 생산물	40,363	3.96	111,215	13.25	175.54
광물성 생산물	78,039	7.65	75,248	8.97	▽3.58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70,580	6.92	61,060	7.28	▽13.49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64,203	6.29	54,291	6.47	▽15.44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제품	15,852	1.55	41,048	4.89	158.95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물	15,355	1.50	24,468	2.92	59.35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69,049	6.77	2,356	0.28	▽96.59
기타	172,458	16.90	82,950	9.88	▽51.19
합 계	1,020,508	100.00	839,244	100.00	▽17.76

북한의 주요 수입상품 현황 (단위 : 1000달러, %)					
H S 대 분 류	1993		1994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광물성 생산물	335,437	20.71	200,024	15.77	▽40.38
방직용 섬유와 제품	194,215	11.99	184,950	14.58	▽4.77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44,809	8.94	177,964	14.03	22.90
비금속과 그제품	162,199	10.02	106,616	8.40	▽34.27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물	99,643	6.15	64,318	5.07	▽35.82
식물성 생산물	142,424	8.79	59,867	4.72	▽62.41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139,871	8.64	56,237	4.43	▽59.78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제품	53,632	3.31	42,390	3.34	▽22.50
기타	347,254	21.44	376,404	29.67	8.39
합 계	1,619,484	100.00	1,268,770	100.00	▽21.66

무공이 분석한 94년 북한교역동향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산업동향 기초는 중공업이 우선이었으나 러시아·중국 등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설비부품 및 기술지원이 끊기면서 비중이 크게 악화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수출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공업은 북한당국의 경공업제일주의 정책으로 경공업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94년 4%에서 5.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설비현대화를 추진, 주력수출산업으로

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무공은 북한의 중공업이 수출에서 선두자리를 내주긴 했으나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중공업이 설비노후화-품질낙후-수출부진-외화부족-신규투자미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상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북한경제 회복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러시아 및 동유럽과 중국 등 구공산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축소되면서 교역상대국의 다변화와 서방무역권에 대한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최근 북한 무역의 한 특징이다.

94년 교역은 수출입이 모두 20% 내외로 격감했는데 이는 대부분 중국·러시아 등 구사회주의권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최대무역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이 3억달러 가까이 감소했으며 러시아와도 6000만달러 이상 감소하는 등 구사회주의권과 교역규모가 93년보다 5억달러나 감소한 8억30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94년 12억8000만달러에 달한 북한의 대서방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구사회주의권을 추월했다.

무공은 구사회주의권의 무역이 정상거래방식으로 바뀌고 더이상의 경제원조도 기대할 수 없게되자 대서방 무역에 주력하는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무역관계자들을 대거 해외에 연수시키고 있는 것도 대서방 무역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한편, 남북한 반출입교역은 내국간거래로 인정, 대외무역실적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순위로는 중국·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 93년보다 한계단 올라섰으며 비중도 93년 7.1%에서 94년에는 9.2%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저널 1995/6/5>